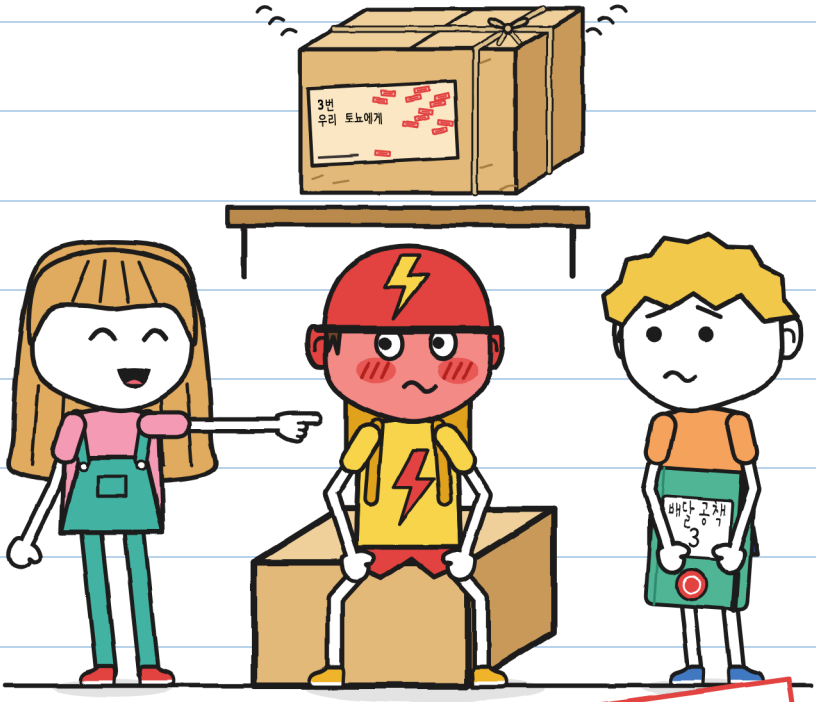
불가능 배달 · 3
반송 부탁해요

LinguAula



(구니의)

사이즈 XS
처음 읽기 · 5+

불가능 배달 · 3
반송 부탁해요

글과 그림: LinguAula

사이즈 XS · 처음 읽기 · 5+

한국어판: LinguAula

초판: 2026

© 2026 LinguAula · info@linguaula.com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세 번째 책.



LinguAula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배달개진 사람은 있다.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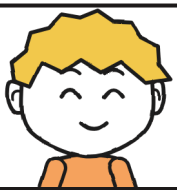
내가 먼저 읽는다. —J.

이걸 찾았다면 돌려줘. 부탁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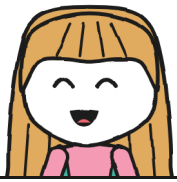
이야기 속에서만

진짜 자전거는 76쪽. —J.

등장인물



구니는 이것저것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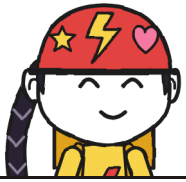
훌리타는 초록색으로 쓴다.



토쇼는 얼굴이 빨개진다.



마라는 마녀다.



조이는 별명을 붙인다.



브루노는 한번 펑크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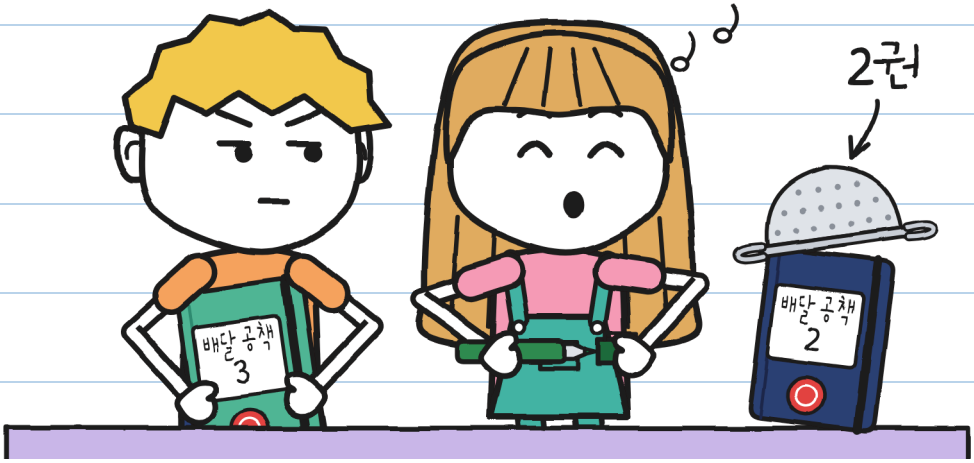
3번 택배는 소리가 난다.



R.은 이름이 없다.

배달 공책 3
주인 : 구니

비밀! 내가 먼저 읽어. -J.



공책 2권은 다 썼다. 이건
초록색이다. 훌리타가 먼저 썼다.

널 도우려고. 천만에. -J.

나는 도와 달라고 하지 않았다.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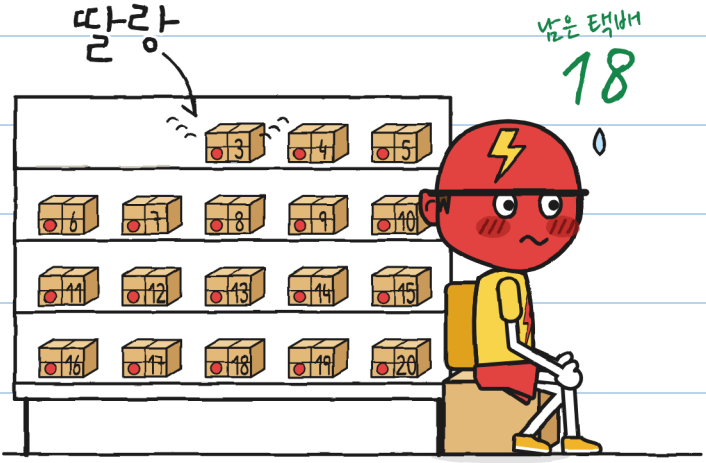
딸랑

마라아줌마는 아무도 배달

못 한 택배를 모아 둔다.

폭풍이 친 날 밤, 택배 하나가 소리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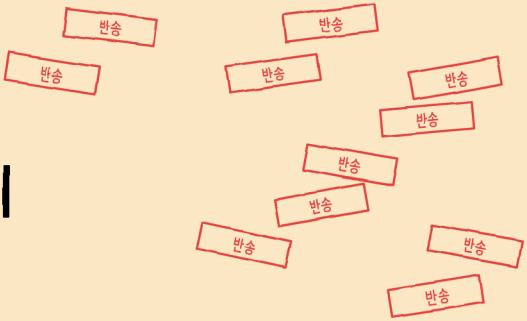
딸랑.



3번 택배였다. 토뇨의 얼굴이 빨개졌다.

서명이 없으면 택배는 날아서 돌아간다.
받는 사람의 서명만 인정된다.

3번
우리 토뇨에게



보내는 사람: **R.**

훌리타가 읽었다. "우리 토..."
훌리타가 입을 다물었다. 토뇨의
얼굴이 빨개지고 있었다.

반 단어만 읽었다. —J.

토뇨는 한 군데씩 빨개진다.

토뇨의 빨강계



"그 택배는 기다려도 돼요." 토뇨가 말했다.

"번개배송은 안 급해요."

번개배송이 기다리는 건 처음이었다.

그날 밤: 4. 초록색뿐. —J.

"오늘은 아무것도 안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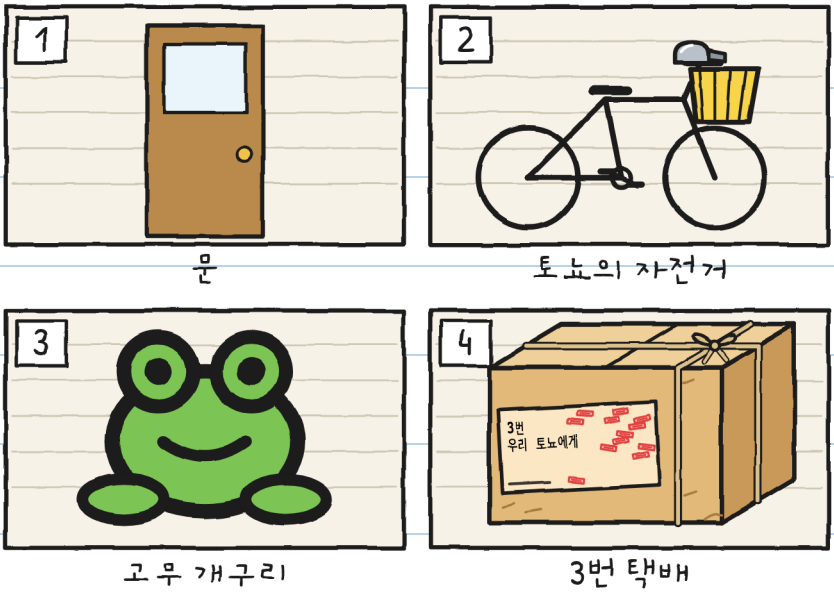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또 소리가 났다. 딸랑!

"문이 그랬어!" 훌리타가 말했다.

뭔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목록을 만든다.

딸랑 소리의 용의자



개구리는 무죄야. —J.

인도에서 소리를 시험했다.

문, 벨, 개구리. 끼이익, 따르릉!, 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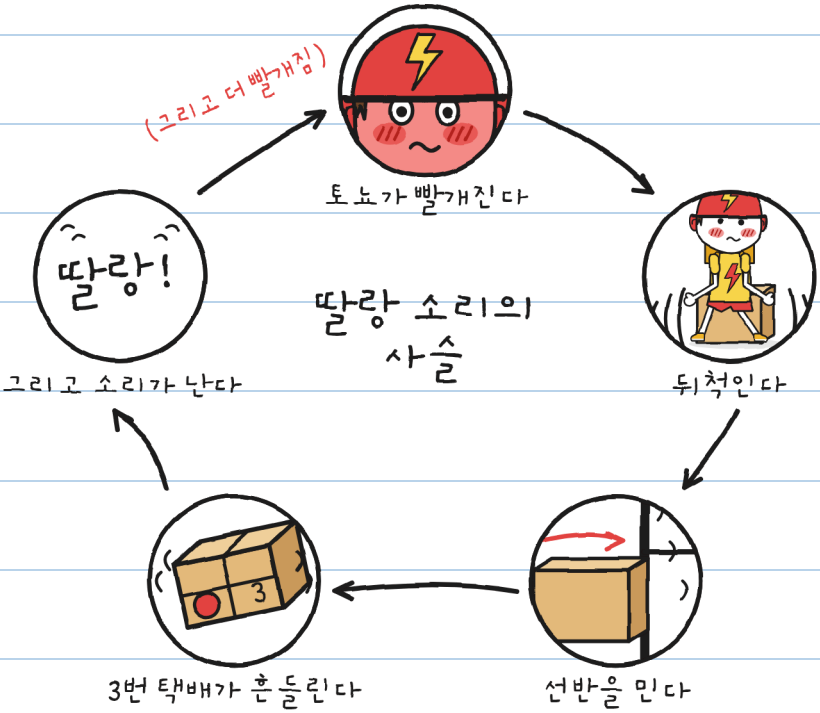


어느 것도 그런 소리가

아니었다. 토요가 움직였다.

딸랑.

토뇨의 상자가 선반에 닿아 있었다.



마법이 아니었다. 토뇨였다.

택배 안에서 뭔가가 소리를 낸다.

나처럼 —J.

토뇨는 가만히 있기로

했다. 이만큼 버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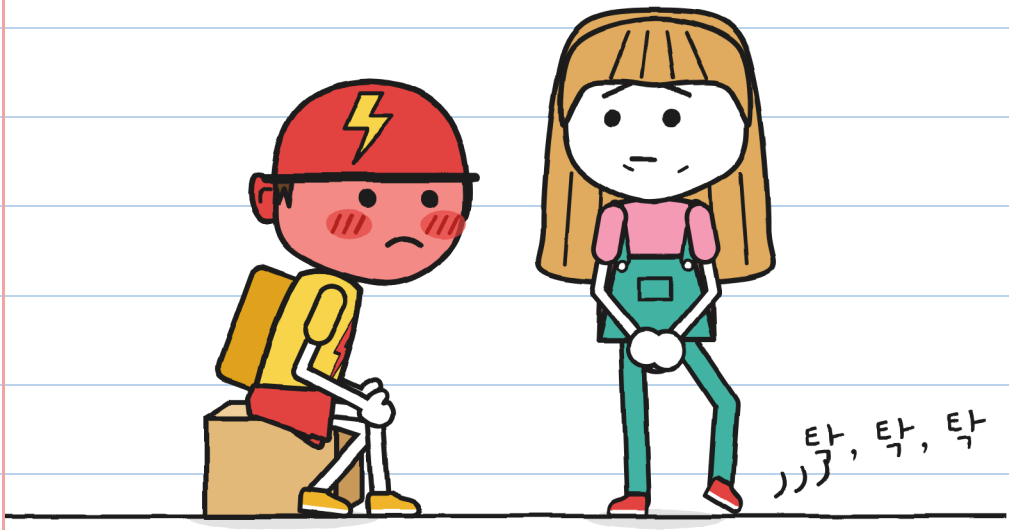
질문은 선반을 밀지 않아. —J.

이번 건 밀었다.

"나였어." 토쇼가 말했다. "어릴 때."

훌리타는 묻고 싶은 게

많았다. 입을 다물었다.



"더 안 물어볼게." 훌리타가 말했다.

발을 달달 떨었다.

못한 질문: 아홉 개.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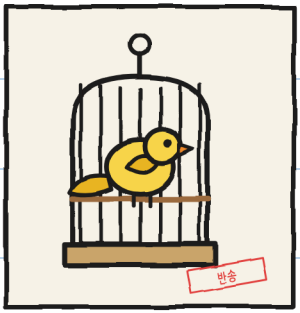
"왜 한 번도 전해 주지

못했어요?" 내가 물었다.

"열두 번 가져갔어. 길

이름도, 번호도, 성도 없어."

마라의 우리 토뇨들



1. 카나리아 한 마리.
(안 된다.)



2. 안토니오 할아버지, 귀세.
("나도 그러고 싶구나.")



3. 운하의 작은 배.
(손이 없다.)

"토뇨는요?" 훌리타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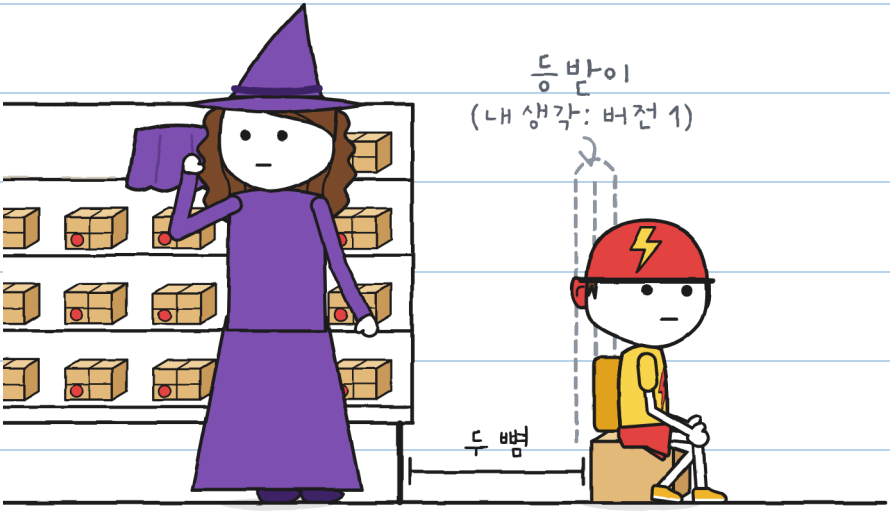
"아무도 이름을 알려 주지

않았어."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마라 아줌마가 3번 택배를 덮었다.

토뇨의 상자를 멀리 옮겼다.

"이제 움직여도 돼."



토뇨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었다. 토뇨는 다시 앉았다.

아무도 등받이 달라고 안 했어. —J.

"내일 올게요." 토쇼가 말했다.

"우리끼리요. 번개배송 사람은 빼고요."



택배는 토쇼에게 온 것이었다. 원할까?

토쇼를 어떻게 도울지 난 알아. —J.

그게 걱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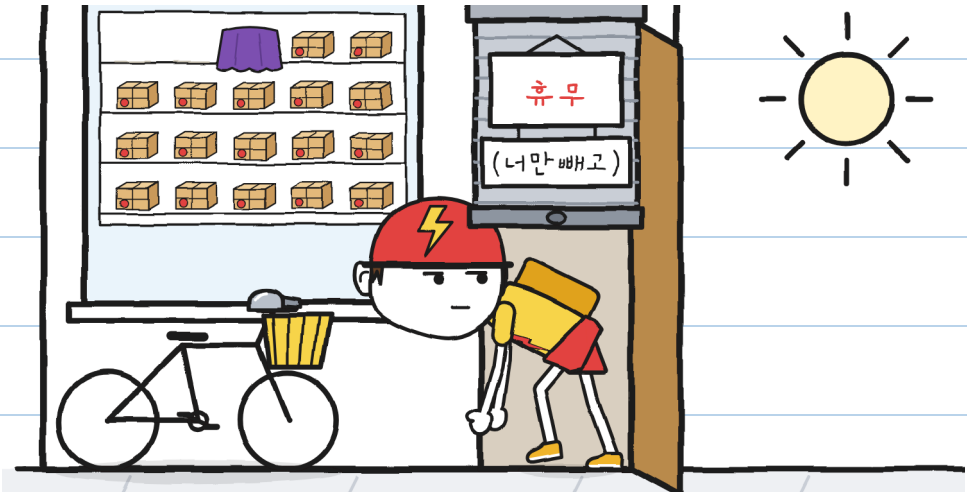
제2장

좋다고는 안 했어

일요일에는 가게가 쉰다.

토요는 11시에 왔다. 길 양쪽을 살폈다.

번개배송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더 일찍 왔어. 혹시 몰라서. —J.

마라아줌마가 3번

택배를 계산대에 놓았다.

"반을래?"

"좋다고는 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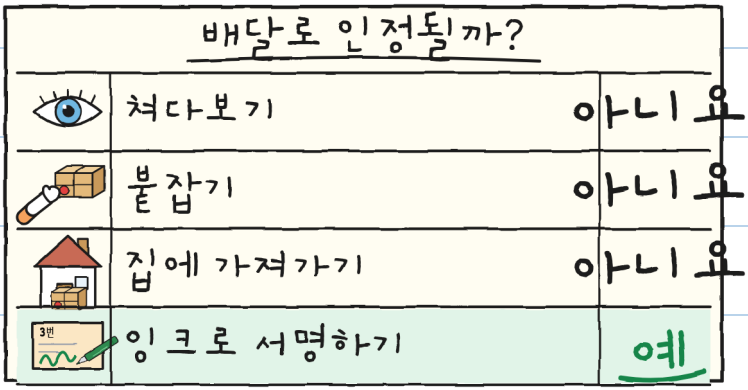
"싫다고도 안했잖아."

"'좋다고는 안했어요'라고 했어요."



서명 안 하려고 세 문장. —J.

토뇨는 뜨거운 냄비를
잡듯이 상자를 잡았다.
딸랑.
토뇨는 상자를 놓았다.
"가져가면 어때요?" 훌리타가 말했다.
"도장은 잉크로 움직여."
마라아줌마가 말했다.



생각이 달라. -J.

"이 배달은 너희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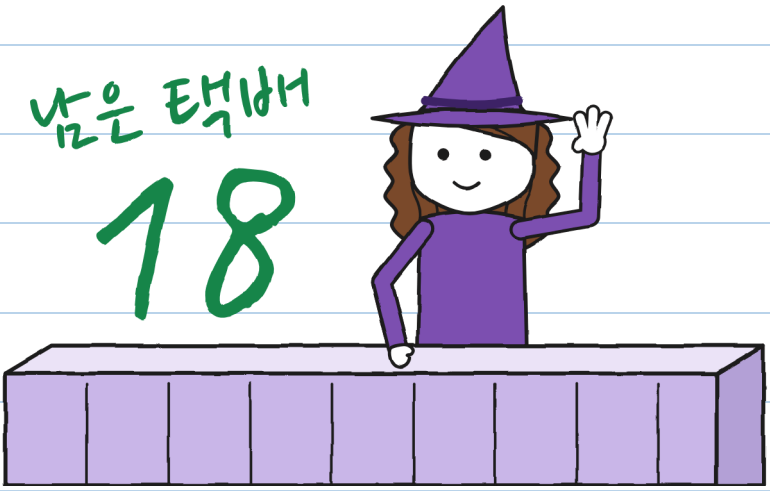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조건은 세 가지다:

1. 상자는 닫아둬.
2. 토요가 달라고 하면 나가.
3. 원하면 서명해.

"끝까지 싫다고 하면요?"

"그럼 영영 안 나가."



토쇼는 4분 동안 말이 없었다.

번개배송에는 거의 배달 반 건이다.

"단은 채로 가져갈게요." 토쇼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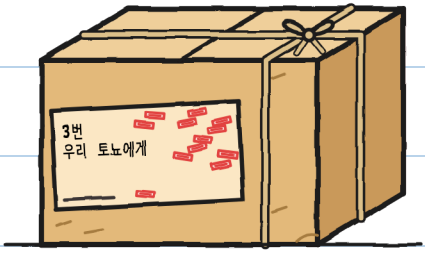
"네가 달라고 하는 거니?"

"제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갔는지 적었다:

나간 기록

- [x] 상자: 단힘
- [x] 라벨: 붙어 있음
- [x] 요청한 사람: 토쇼
- [ ] 서명: 아직 없음



밖에서 토뇨는 3번 택배를 바구니에
넣었다. 소리가 났다. 딸랑.
토뇨는 번개배송 벨을 쳐다보았다.
"왜?" 훌리타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냐."



아무것도는 뭔가 혔어. —J.

번개배송 자전거 두 대가 보였다.

"바구니에 뭐 실었어?"

여자아이가 소리쳤다.

"배달."

거짓말은 아니었다. 토뇨는

라벨을 자기 쪽으로 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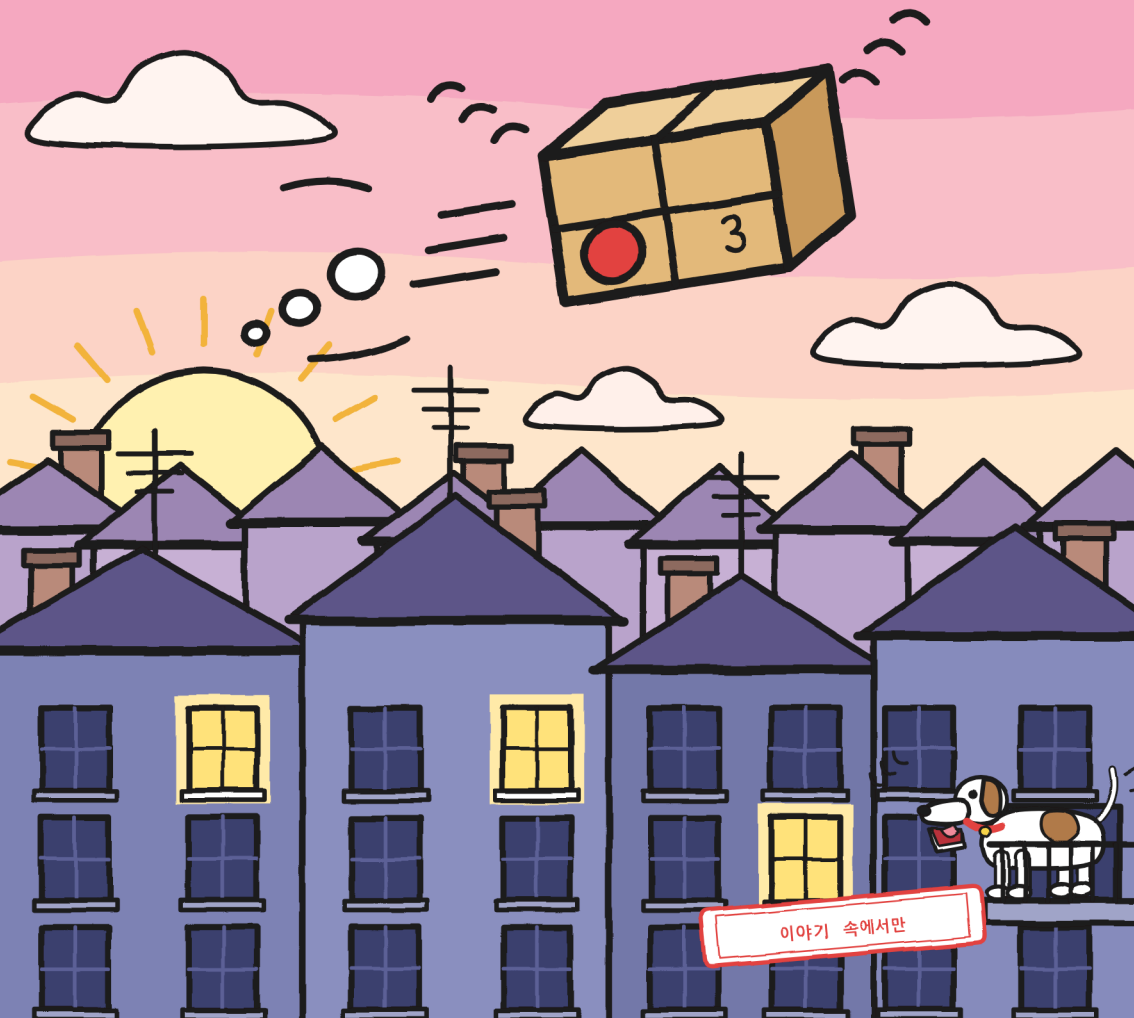
이제 알겠어. 번개배송 사람은 안 돼. —J.

그날 밤 나는 블라인드를 올려 두었다.
3번 택배가 돌아오는지 보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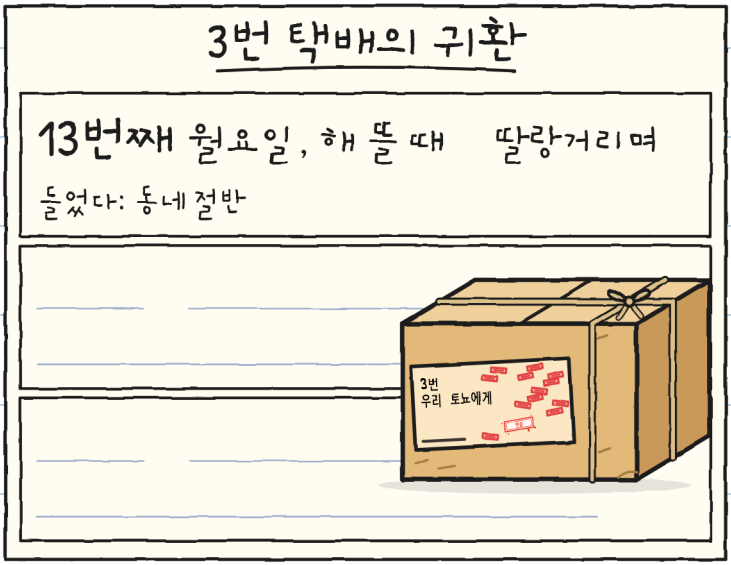
"안 자고 뭐 하니?" 엄마가 말했다.
"택배를 지켜보고 있어."
"잠옷은 입고 지켜보렴."



해 뜰 때 3번 택배의 소리가 들렸다.
딸랑, 딸랑, 딸랑.
지붕 위로 날아서 돌아오고 있었다.



우리는 가게로 갔다. 3번 택배는 선반에 있었다.



"벌이 아니야."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규칙이야.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어. 그래서 돌아와."

벌써 도장이 열세 개. —J.

토뇨는 배달을 마치고 왔다.

3번 택배 얘기는 묻지 않았다.

토뇨가 얘기해 주었다:

토뇨가 해 준 이야기



"상자를 밖에 두었어."

"왜?" 훌리타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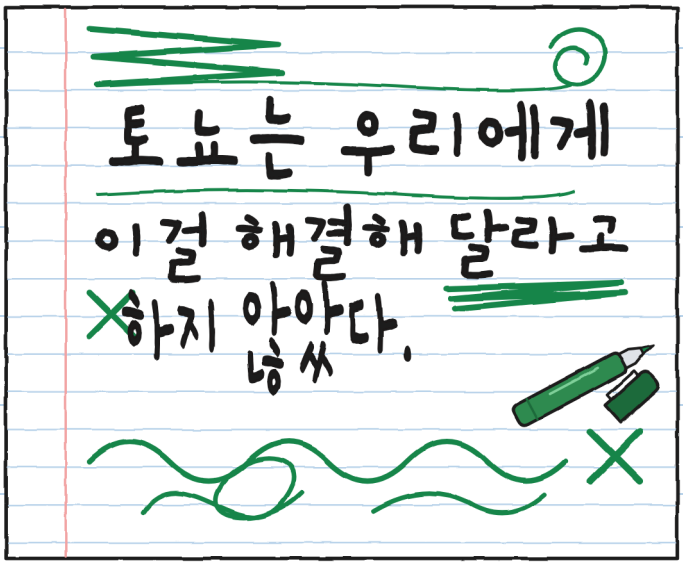
"집에서는 나를 '우리 토뇨'라고 불러."

"서명 하나면 다 해결돼."

훌리타가 말했다. "2초면 돼."

나는 공책을 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썼다:



동의 안 해. —J.

다른 생각이 있어. —J.

제3장

사인

화요일에 인도에서 탁자를 보았다.



"사인용 받침대야." 훌리타가 말했다.

"언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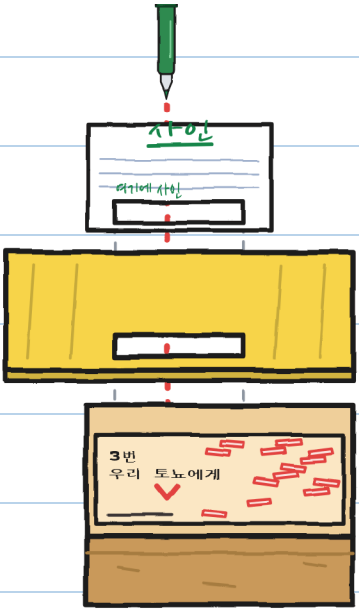
"어제부터."

받침대에는 작은 창이 난 종이가 있었다.

눕혀 놓은 3번 택배였다.

이렇게 한다

1. 종이
2. 식탁보
3. 라벨
4. 라벨에 서명



"내 매직펜으로." 훌리타가 신이 나서 말했다. "내일은 3번 택배가 안 돌아와. 깜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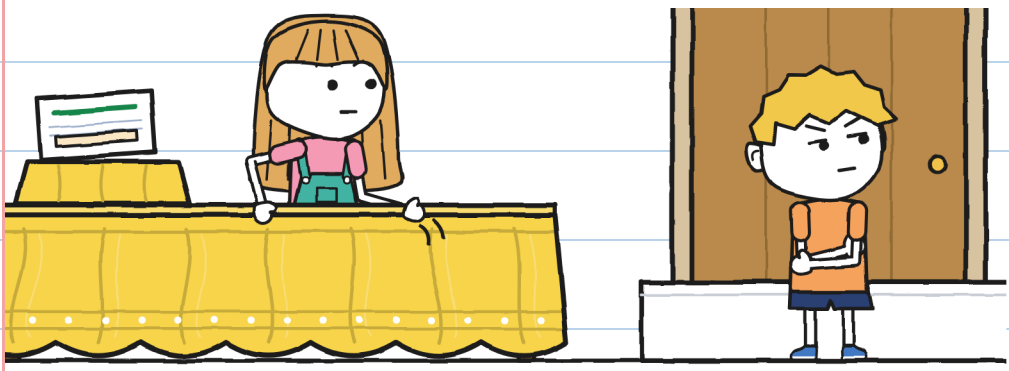
"토뇨는 달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말했다.

"마라아줌마는?"

"'사인 탁자'라고 말했어."

나는 플로라아줌마일을 떠올려 주었다.

"그건 달라." 훌리타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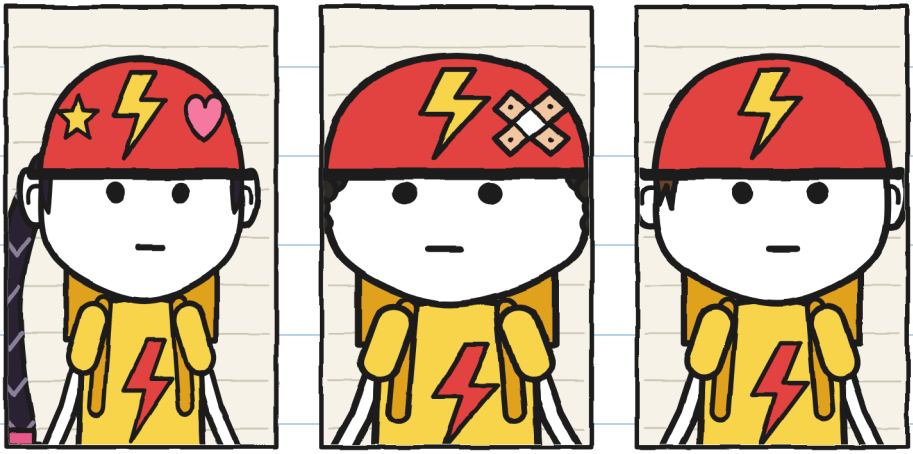


아주 진지하게. 하나도 안 도왔다. —J.

번개배송은 5시 10분에

지나간다. 셋이 줄지어서.

번개배송 카드



조이, '로켓':
제일 빠르다.
별명을 붙여 준다.

브루노, '펑크':
펑크가 한 번 났다.
2년 전에.

토요:
별명 없음.
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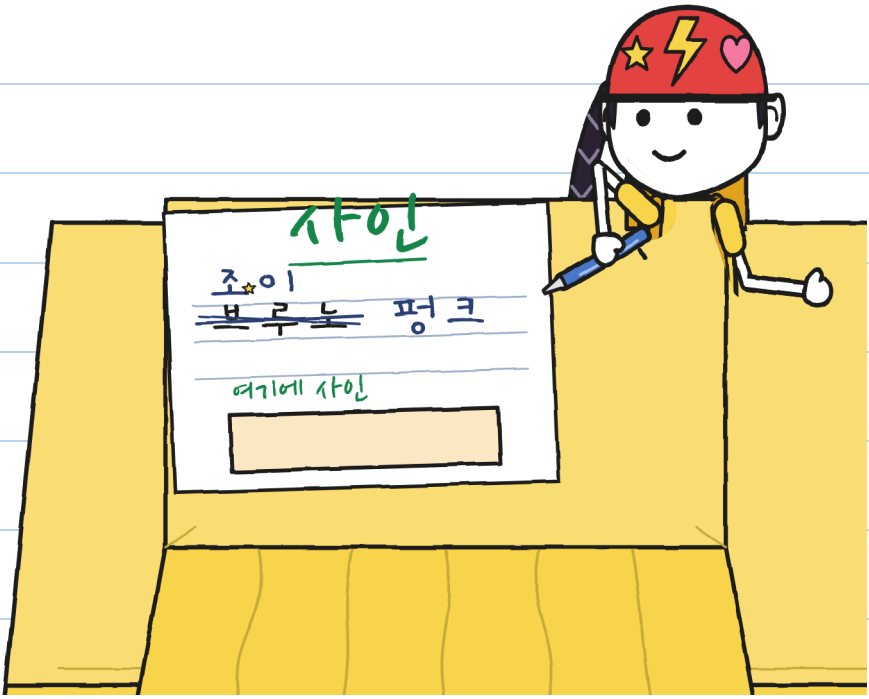
"사인? 우리 사인?" 조이가

말했다. 조이는 멈춰서 내렸다.

아무도 사인을 부탁한 적이 없어. —J.

조이가 '브루노'를 지우고 '펑크'라고 썼다.

"번개배송에서는 별명을 못 없애." 브루노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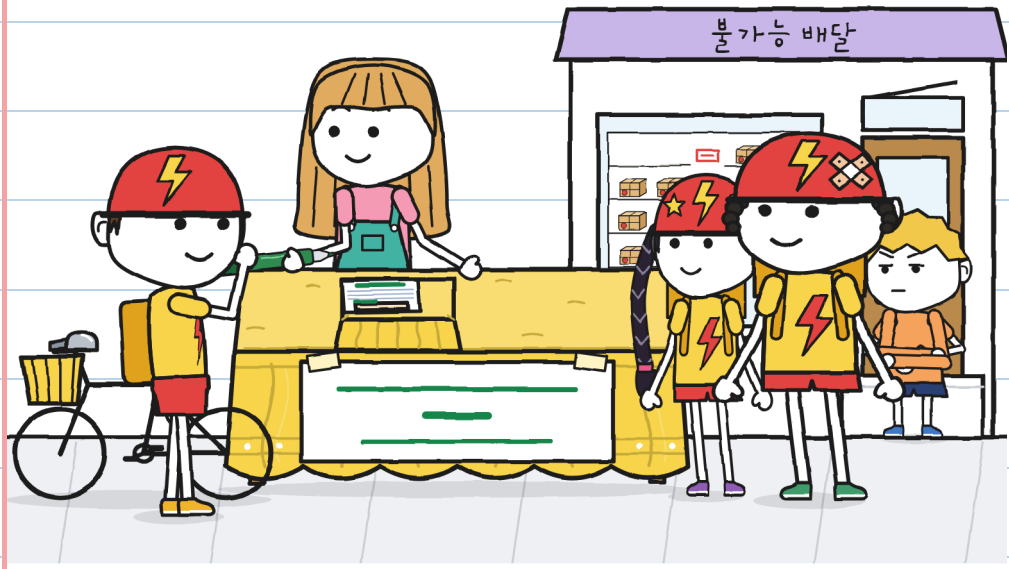


토뇨는 아직 자전거에 있었다. 탁자를 쳐다보았다.

"토뇨 차례야." 훌리타가 말했다.

훌리타가 초록색 매직펜을 주었다.

토뇨는 자전거에서 내려 허리를 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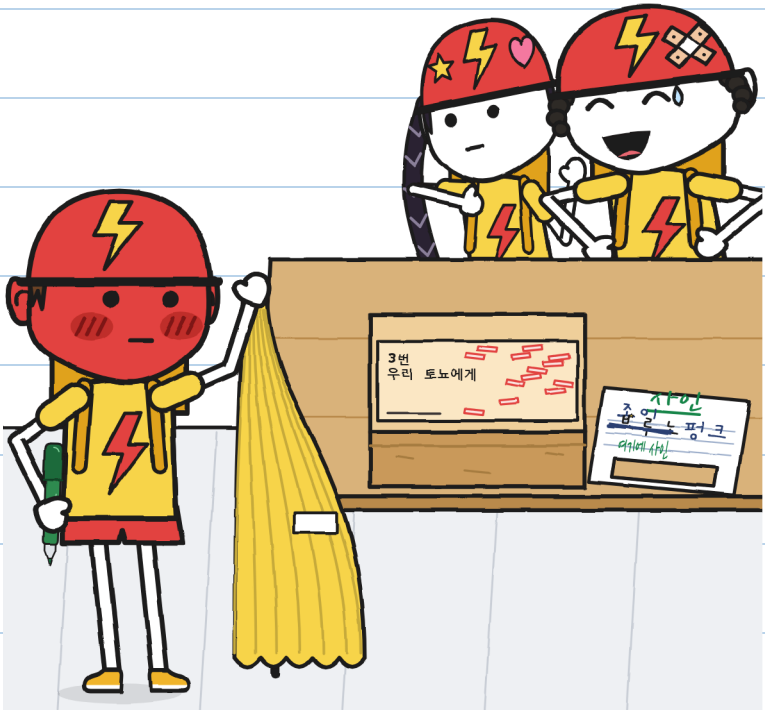
계단에서 다시 쳐보았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다.

나는 일어섰다.
"토쇼, 잠…"
너무 늦었다. 식탁보 밑에서 뭔가가
소리를 냈다.



토뇨가 식탁보를 들어 올렸다.



"우-리 토-뇨-에-게." 조이가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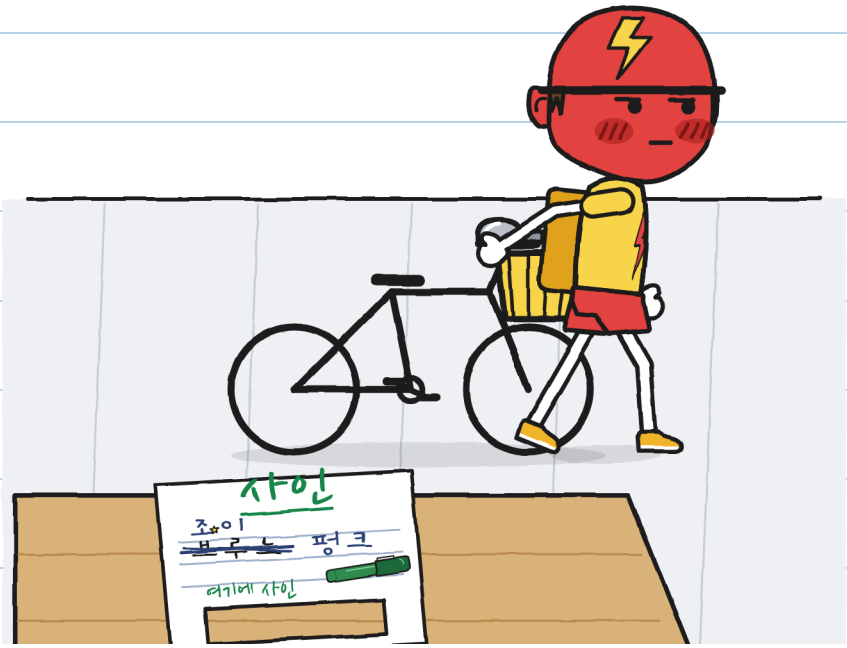
"우리 토뇨?" 브루노가

웃었다. 조이는 웃지 않았다.

토쇼는 매직펜 뚜껑을 닫았다.

서명하지 않은 채 내려놓았다.

"번개배송은 속임수에는 서명 안해."



화가 나서 빨개진 거지,

부끄러워서가 아니었다.

그 빨강엔 숫자가 없어. -J.

마라아줌마가 보라색

천으로 3번 택배를 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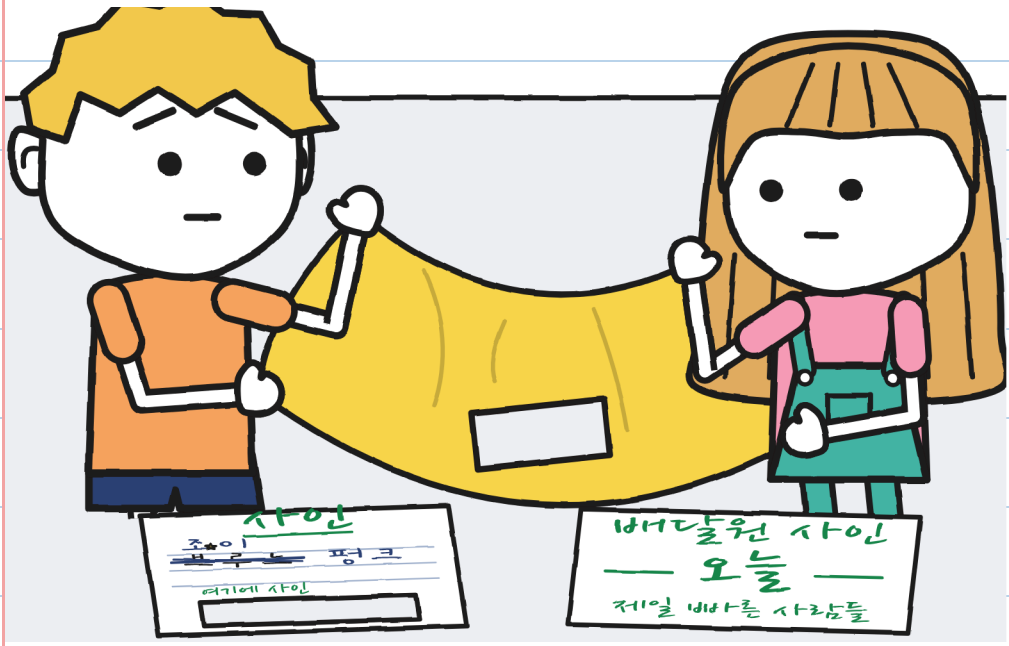
"배달된 게 아니야." 마라아줌마가

말했다. "토뇨가 알아서 할 일이야."



모두 벨도 울리지 않고 떠났다.

나는 훌리타가 정리하는 걸
도왔다. 사인 두 개와 구멍 하나.
"늦게 알렸어." 내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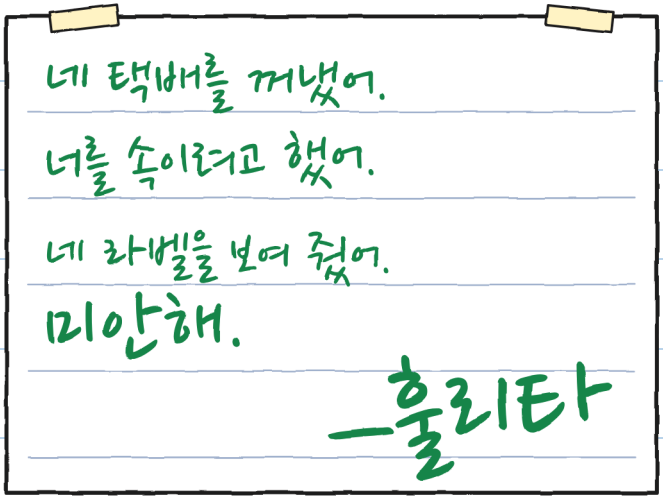


훌리타가 마라 아줌마에게 다 말했다.
"토요한테는 네가 말해."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수요일에 토뇨는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훌리타는 종이를 들고 기다렸다.

사과문



토뇨는 자전거에서 종이를 읽었다.

"용서해 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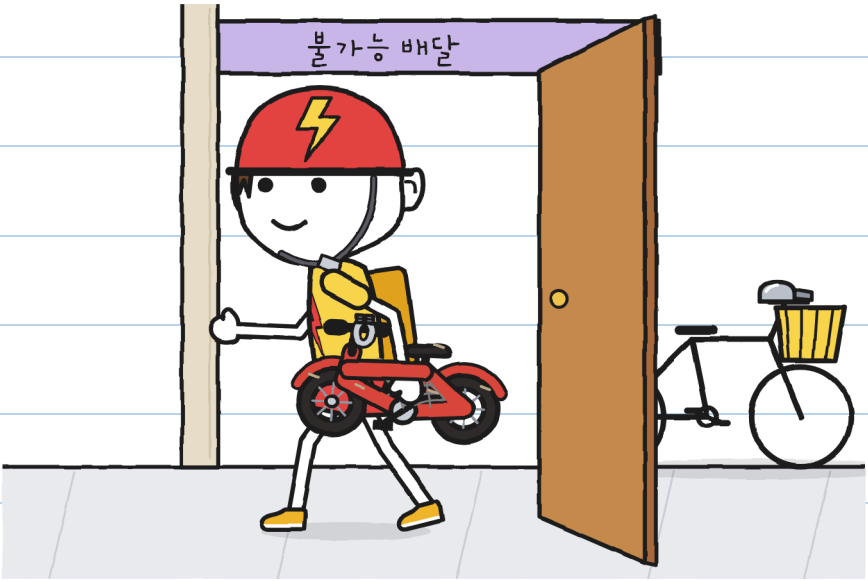
"읽었어."

이름을 다 써서 서명했어. —J.

제4장

작은 자전거

토쇼가 작은 자전거를 가져왔다.



어릴 때 타던 자전거였다.

"그 소리가 기억나는 것 같아." 토쇼가 말했다.

"3번 택배를 열고 싶어요."

마라아줌마는 우리를 뒷방으로 데려갔다.

"여는 건 서명이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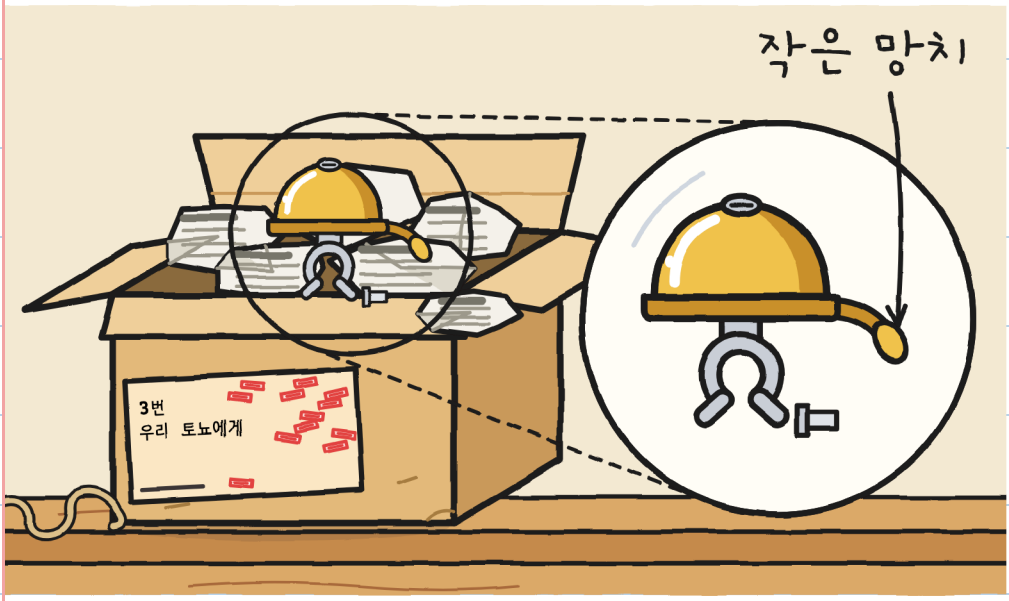


"나 있어도 돼?" 훌리타가 물었다.

"만지지 마." 토뇨가 말했다.

"아무것도 안 만져."

토뇨는 끈을 풀었다. 신문지 사이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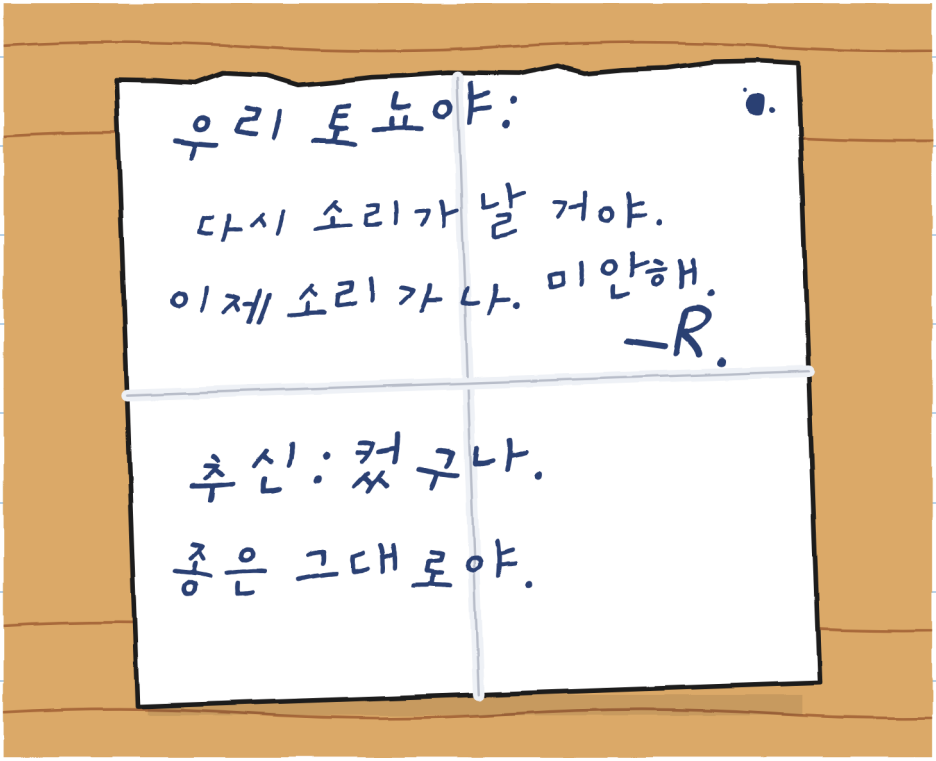
작고 금빛인 자전거 종이었다.

1번 택배는 물었다. 2번 택배는

달렸다. 3번 택배는 소리만 난다.

종 하나. 마음에 들어. —J.

그 밑에 접힌 쪽지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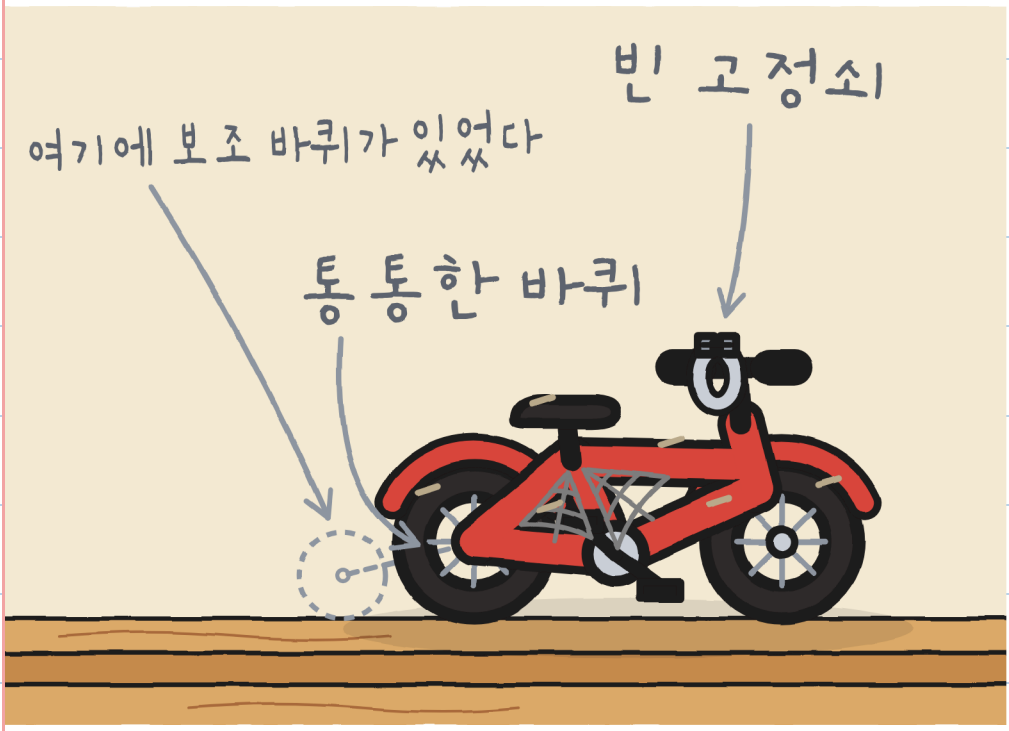


토뇨는 두 번 읽었다.

"글씨 참 못 썼다." 토뇨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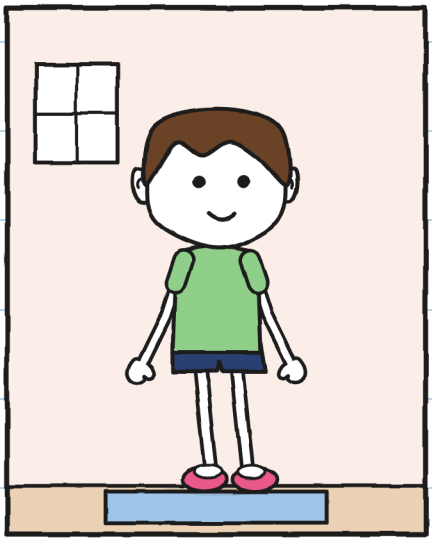
R.은 약속을 늦게 지켜. —J.

그러자 토뇨가 작은 자전거를
탁자에 올려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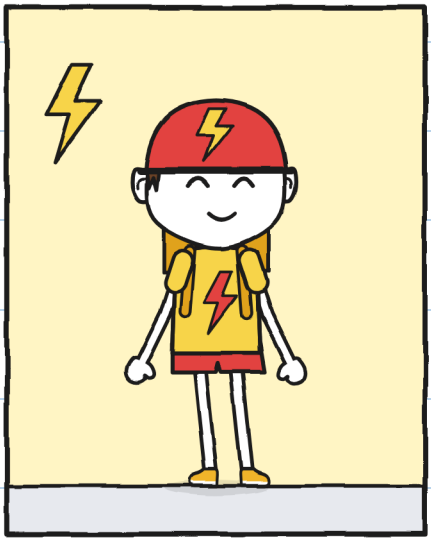


"내 거였어. 어느 날 소리가 안 났어. 누가
그랬어. '고쳐 줄게.' 얼굴은 기억 안 나."

"집에서는 '우리 토뇨'야." 토뇨가 말했다. "번개배송에서는 토뇨야. 거기서는 별명을 못 없애."



집에서: 우리 토뇨



번개배송에서: 토뇨

"브루노가 나를 '우리 토뇨'라고 여섯 번 불렀어." 토뇨가 말했다. 훌리타가 몸을 웅크렸다.

"아직도 맞아?" 훌리타가 물었다.

토쇼가 앉았다.



맞았다. 대충은.

마라아줌마가 거의 웃었다. 토쇼도 같이 웃었다. 토요일 이후로 웃는 걸 못 봤다.

빨강게: 0. —J.

"꼭 달 필요는 없어." 내가 말했다.

"알아." 토쇼가 말했다.

토쇼는 처음 듣는 말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훌리타는 11분 동안 말없이 귀를 기울였다.





11분

1권. 혀가 잡들었어. —J.

"혼자해 보고 싶어." 토뇨가 말했다.

우리는 나왔다. 토뇨가 뒷방을 닫았다.

나는 토뇨의 의자를 그렸다.



딸랑.

토요일의 그 딸랑 소리였다.

그러고는 또 한 번.

토뇨가 종을 들고 나왔다.

"내일까지 가져갈게요. 서명 없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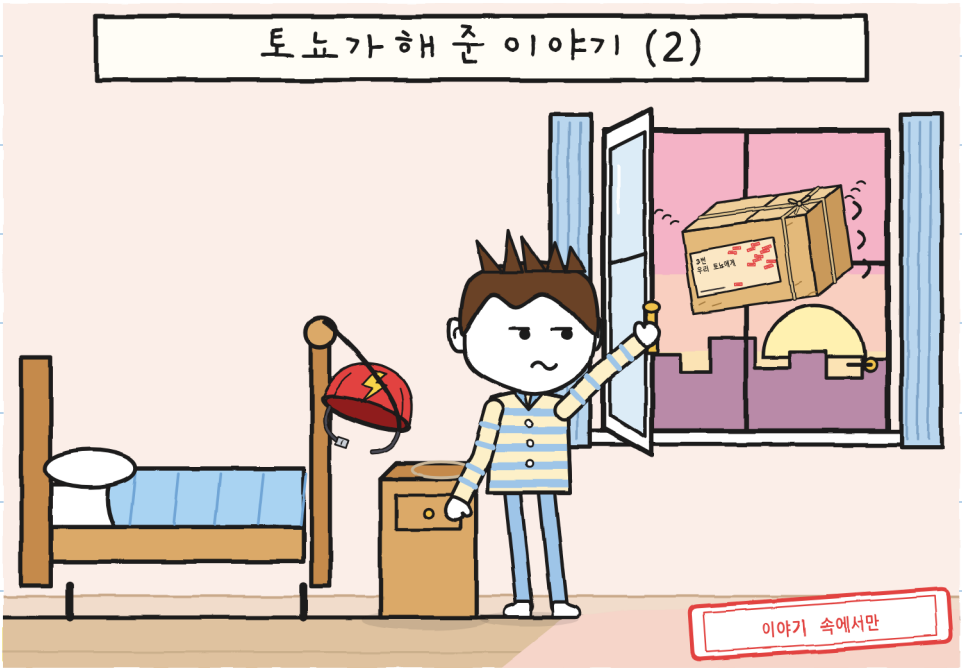
"해 뜰 때 돌아와."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열네 시간 남았어. —J.

금요일, 14번째 귀환.

토뇨가 얘기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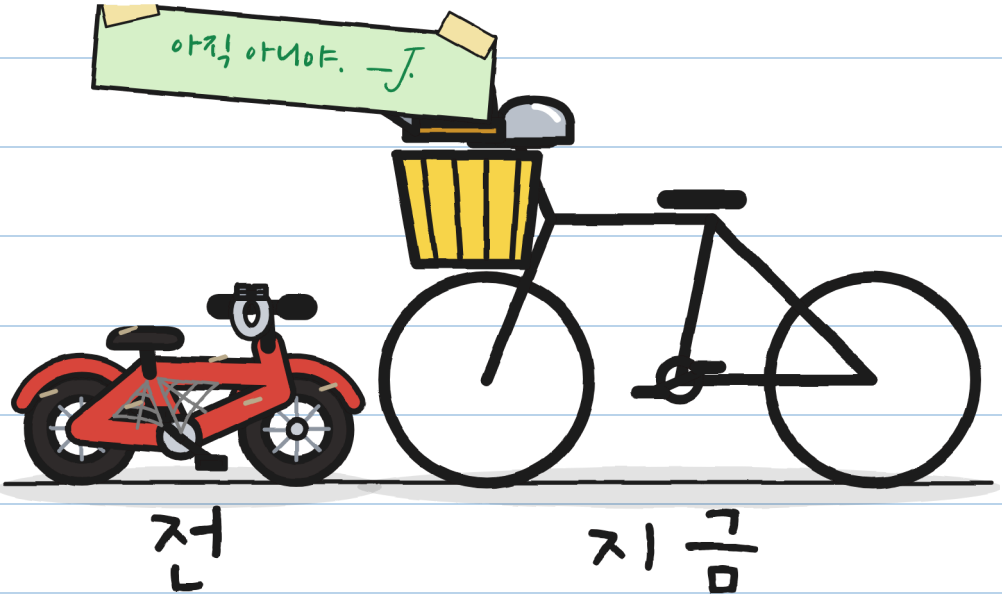
"3번 택배가 내 침대 옆 탁자에서 잤어.
유리창을 쿵쿵 쳤어. 창문을 열어 줬지."

예의도 바르지. —J.

토뇨의 자전거 두 대를

그렸다. 종을 그려 넣었다.

훌리타가 그 위에 쪽지를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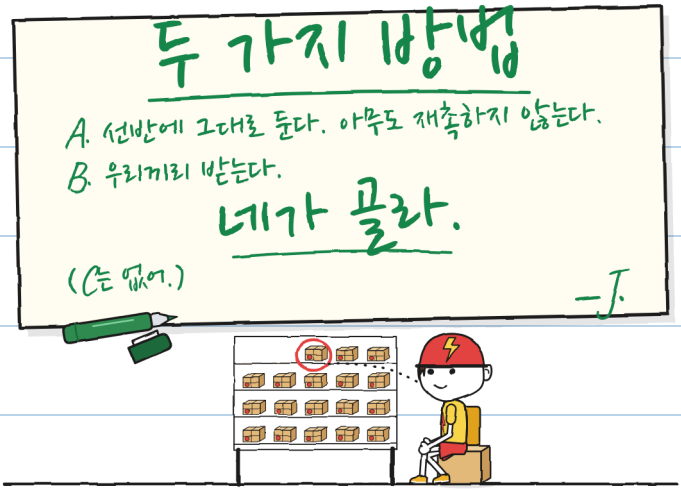


훌리타 말이 맞았다. 조금 짜증 난다.

제5장

우리끼리

3번 택배는 선반에 있었다. 도장이 열네 개였다. 토쇼는 멀리서 바라보았다. 훌리타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무서웠다. 두 가지 방법이 적힌 종이였다.



"서명하면 누가 알아요?"

"나랑 내 장부. 번개배송에는 말 안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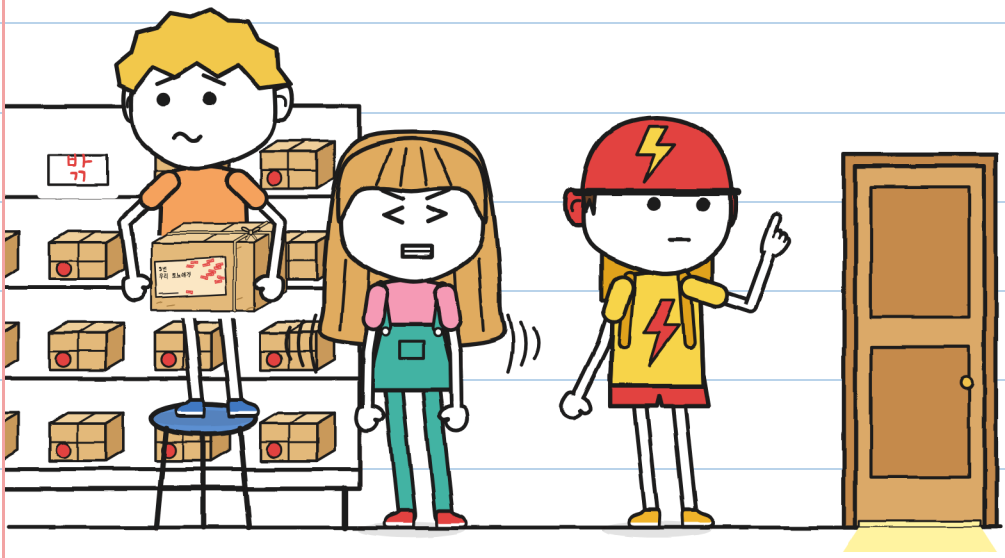
이름은 서랍에. —J.

"B로 할래, 뒷방에서." 토쇼가 말했다.

훌리타는 펄쩍 뛰지 않았다.

아주아주 가만히 있었다.

"너희 둘이랑."



토뇨는 종과 쪽지를 꺼냈다.

"서명하기 전에는 읽어 봐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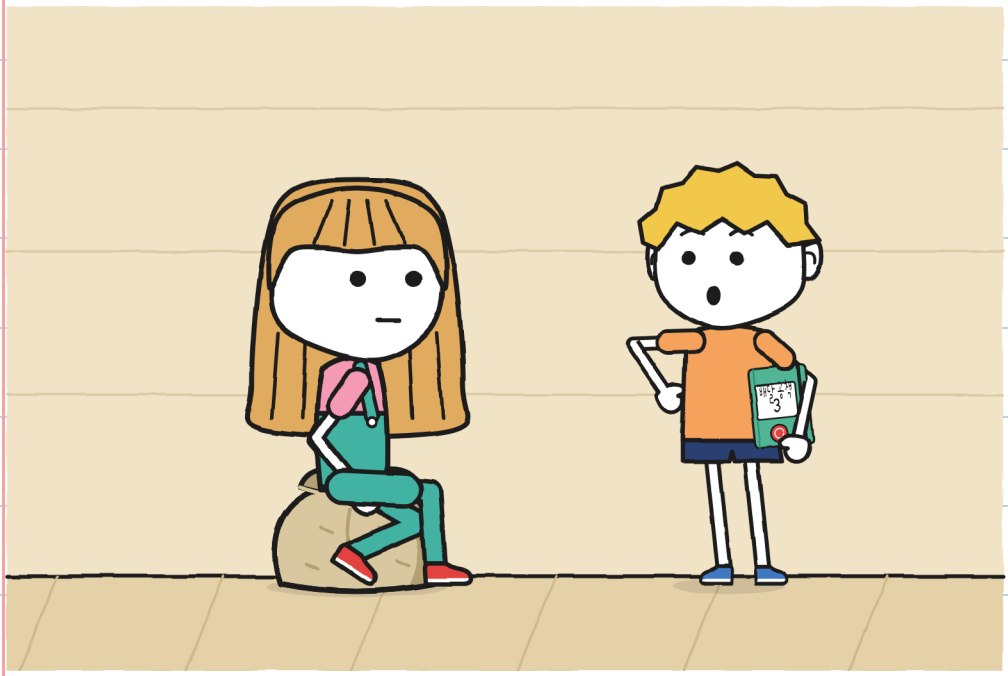
훌리타는 티셔츠처럼 분홍색이 되었다.



훌리타가 자루에 앉았다.

"뭐 해?" 내가 물었다.

"내 손 위에 앉았어. 도와주지 않으려고."



나는 공책을 덮었다.

그러고는 다 적었다. —J.

토뇨가 매직펜 뚜껑을 열고 서명했다.



라벨에는 '우리 토뇨'라고 적혀 있었다. 서명은 '토뇨'였다.

"받는 사람이 서명하는 거야."

마라아줌마가 말했다.

마라 아줌마가 배달을 적었다.

"팻말 바꿔도 돼?"

훌리타가 토뇨에게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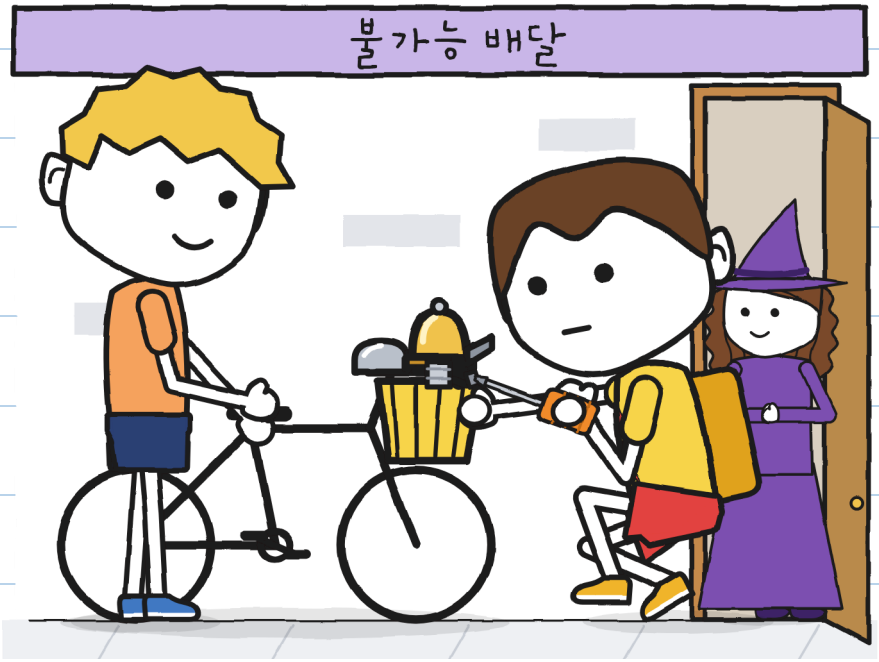
"좋아."



내가 먼저 물어봤어. 적어 둬. —J.

"번개배송 벨은?" 내가 물었다.

"그건 번개배송 거야. 이건 내 거고."



토뇨가 종을 달았다.

나는 자전거를 잡았다.

딸랑.

"그 소리 나는 건 뭐야?" 브루노가 물었다.

"내 종이야." 토뇨가 말했다.

나는 토뇨의 귀를 보았다.

빨간 데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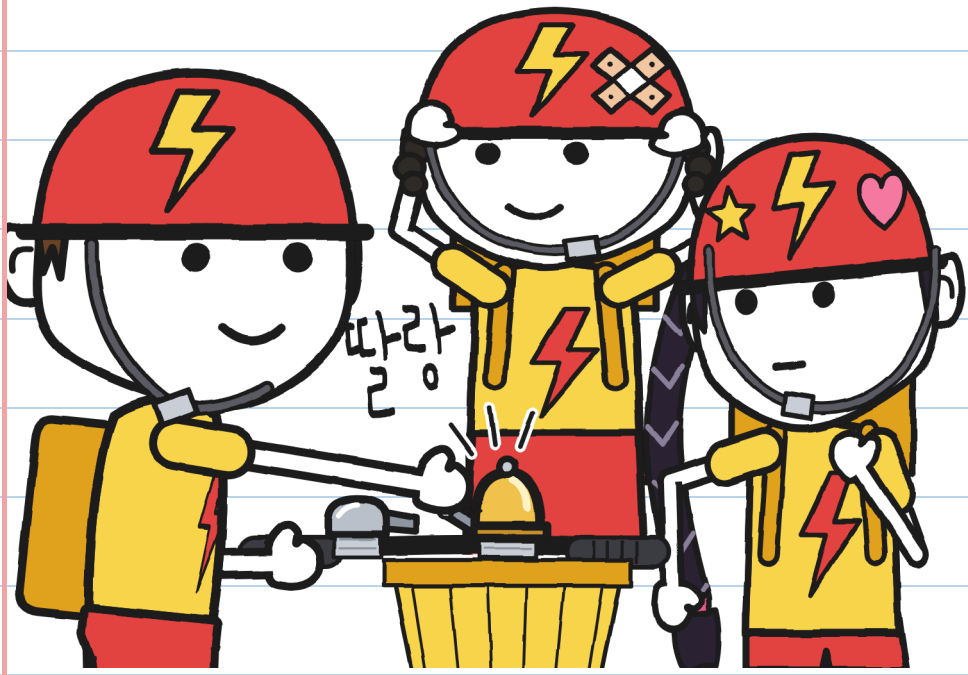
"나는 토뇨야. 너는?"

"브루노."

토뇨가 종을 쳤다. 딸랑.

"소리 좋네." 조이가

말했다. "늦었어, 토뇨."



토뇨와 고만 했어. —J.

그날밤 블라인드를 올려 두었다.

"또 지켜보니?" 엄마가 말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안 생기는지 지켜봐."



뚜껑 열린 매직펜. 초록색 베개. —J.

해가 떴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딸랑 소리도 없었다.
우리 동네 길에서 제일 예쁜 고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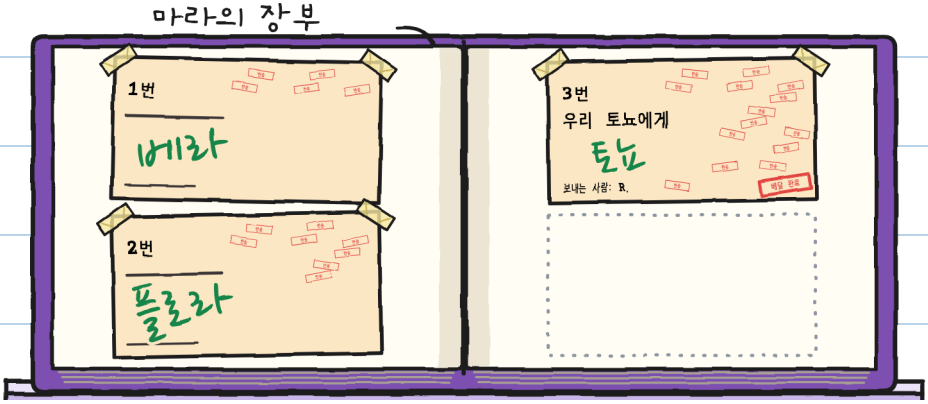
제6장

일단은

토요일에 선반을 그렸다.

택배 열일곱 개. 빈자리 세 개.

마라아줌마가 라벨을 장부에 붙였다.



셋 다 늦게 도착했다. 셋 다 도착했다.

때직펜만 건넸어.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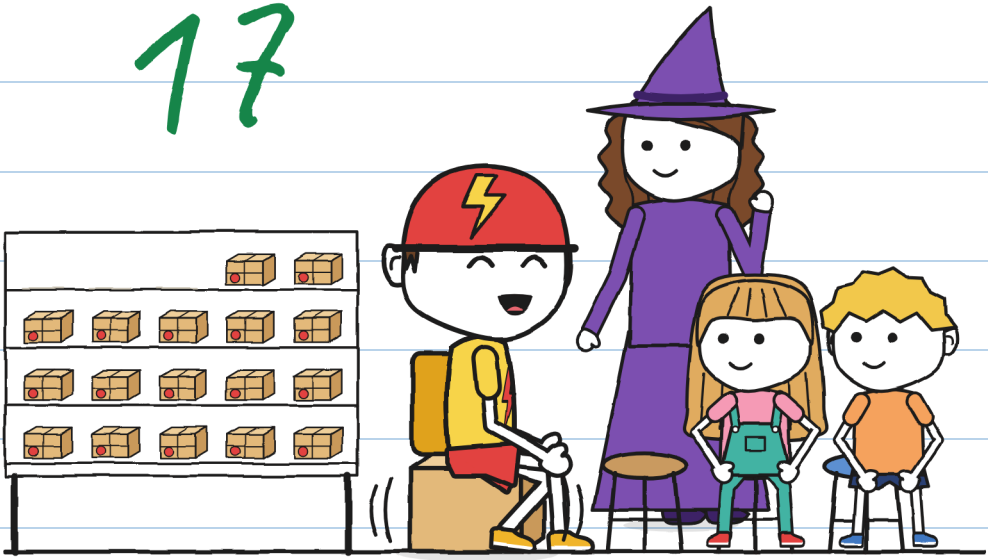
토뇨는 자기 상자에 앉았다.

"일단 네 자리야."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일단은 이거면 돼요." 토뇨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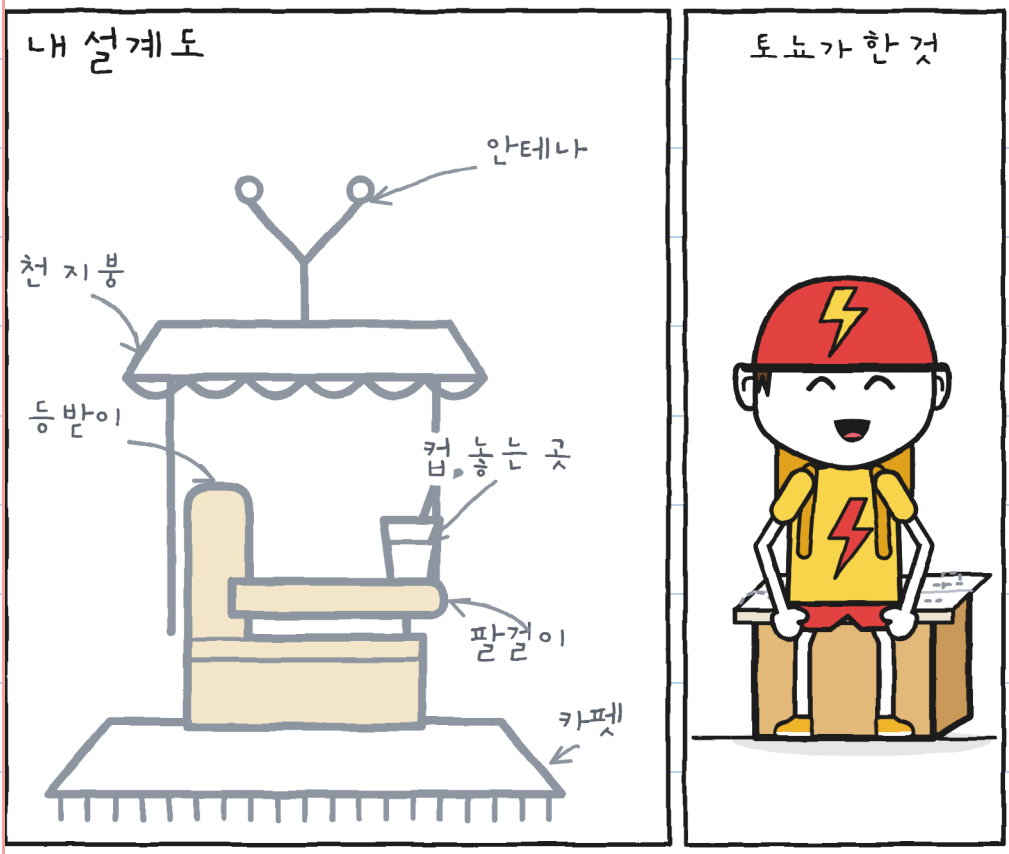
남은 택배

17



일단은은 몇 년도 갈 수 있어. —J.

토쇼에게 의자 그림을 보여
주었다. 일주일이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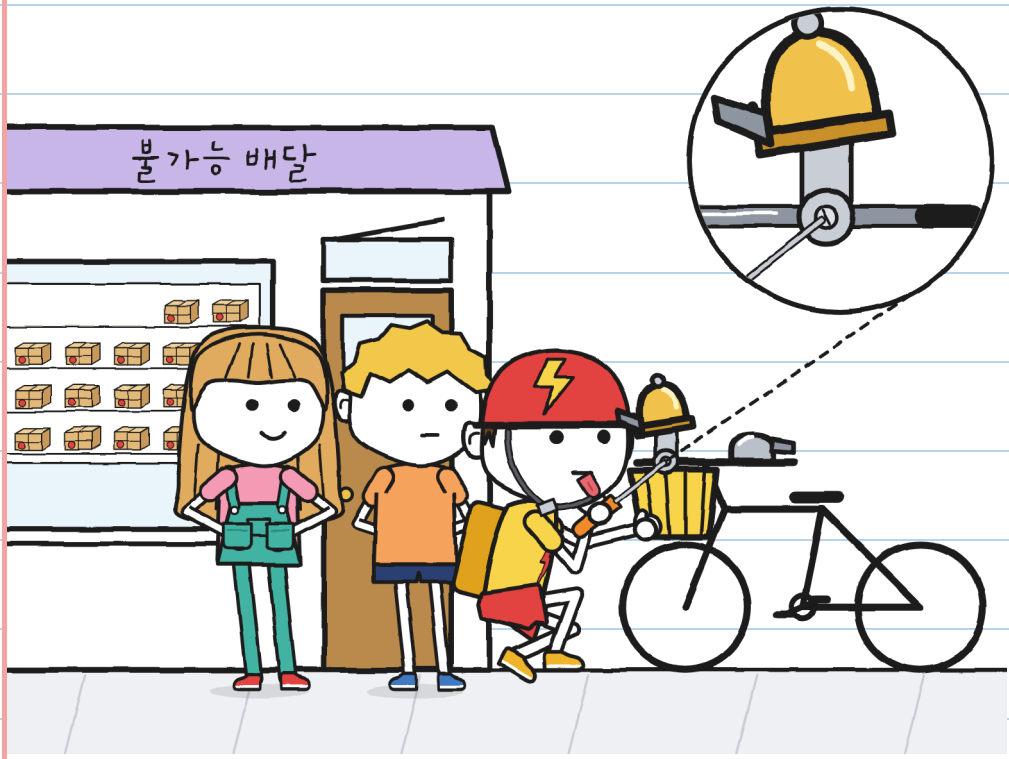
"나 줄래?"

토쇼는 그림을 접고 그 위에 앉았다.

"내가 잡아 줄게." 내가 말했다.

"내가 할 수 있어." 토요가 말했다.

나는 나사를 쳐다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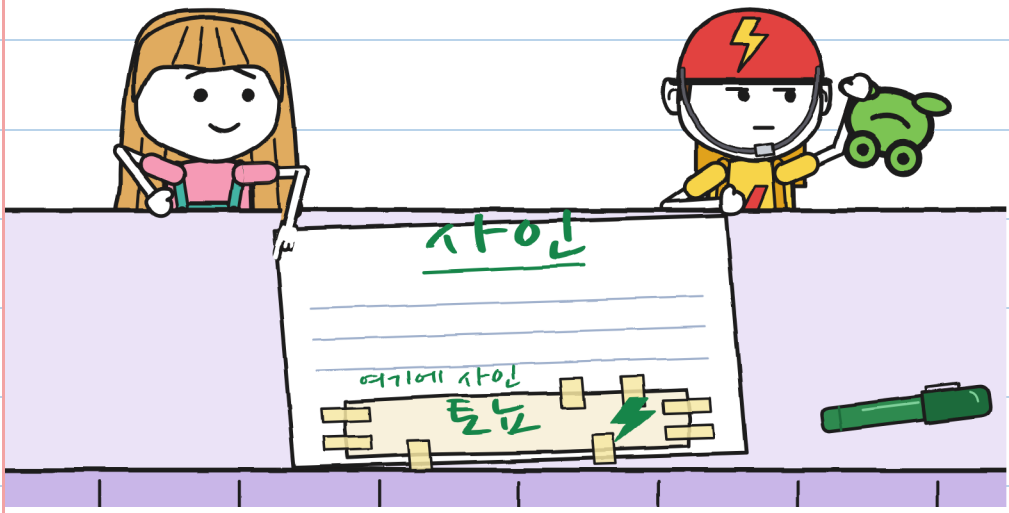


훌리타가 사인 종이를 꺼냈다.

"진짜 사인해 줄래?"

토뇨는 종이 밑을 보았다.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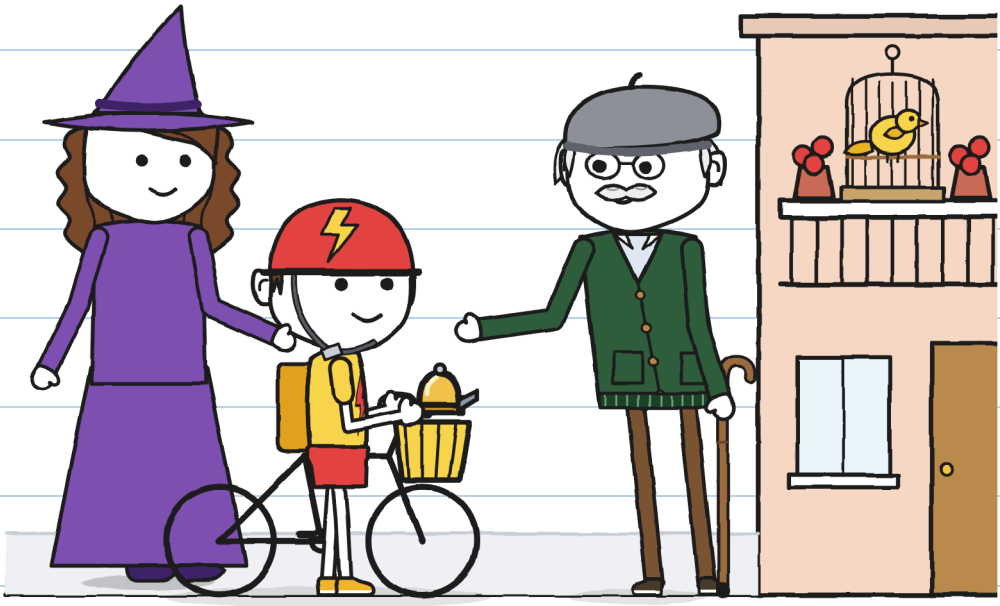
받을 만해. —J.

베레모를 쓴 할아버지가
천천히 건너고 있었다.
토뇨는 멈추고 기다렸다.
딸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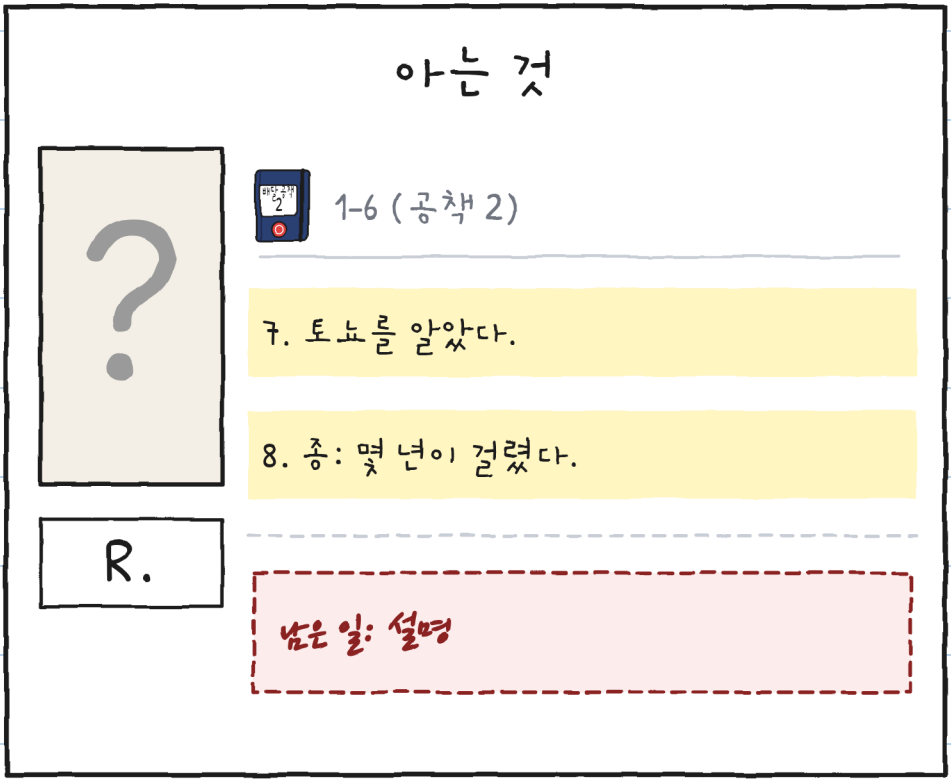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어 인사했다.

"안토니오 할아버지야. 두 번째
'우리 토뇨'."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이름을 바꿀까?" 할아버지가 물었다.
"일단은 사양할게요."



벌써 단서가 여섯 개 있었다.

우리는 두 개를 더 적었다.



"고맙다고 할 거야?" 훌리타가 물었다.

"고맙다는 말도 불평도. 둘 다."

1시에 베라 아줌마가

부스러기를 안고 들어왔다.

"부스러기에게 안전한 곳이 필요하단다."



부스러기가 내 '내가 안

했어' 얼굴을 지었다.

네 얼굴이랑 똑같아. 국수 가락까지.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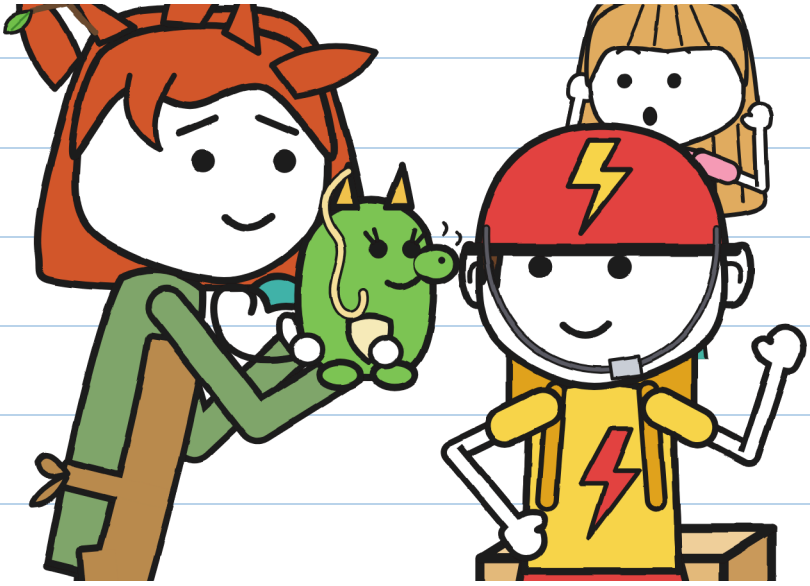
"빠른 사람이 필요하세요?"

토뇨가 물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단다."

베라 아줌마가 말했다.

"이제 할 줄 알아요."



나도 기다릴 줄 알아. 이제 됐어? —J.

3번 택배 배달. 각자 걸린 시간:

	번개배송 : 10분.
	R. : 몇 년.
	토쇼 : 6일.
	휼리타 : 11분.



토쇼는 배달하러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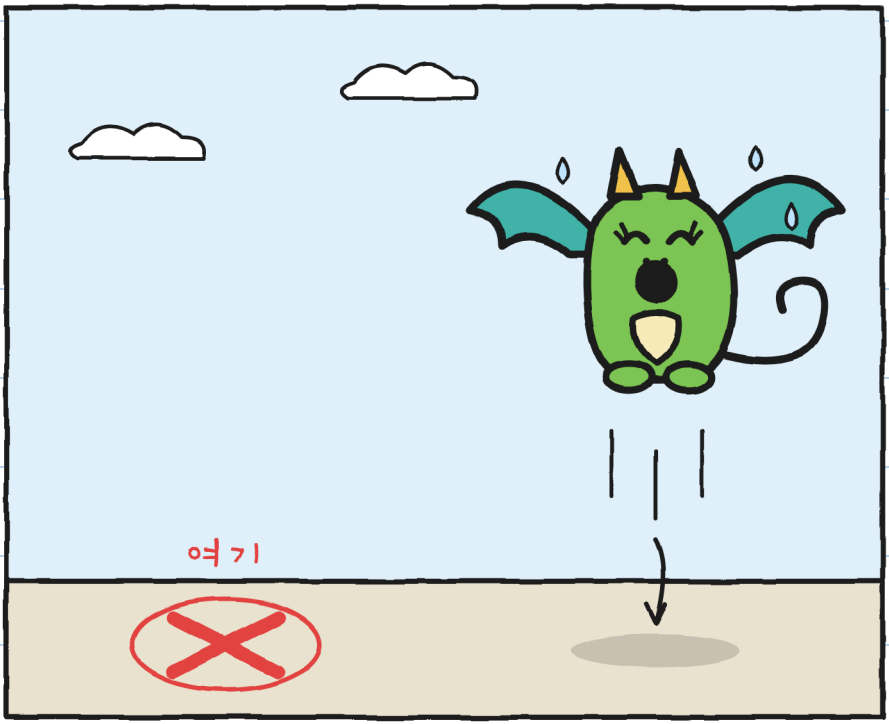
딸랑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토쇼가 울렸다.

나는 아직도 혼자 딸랑거려.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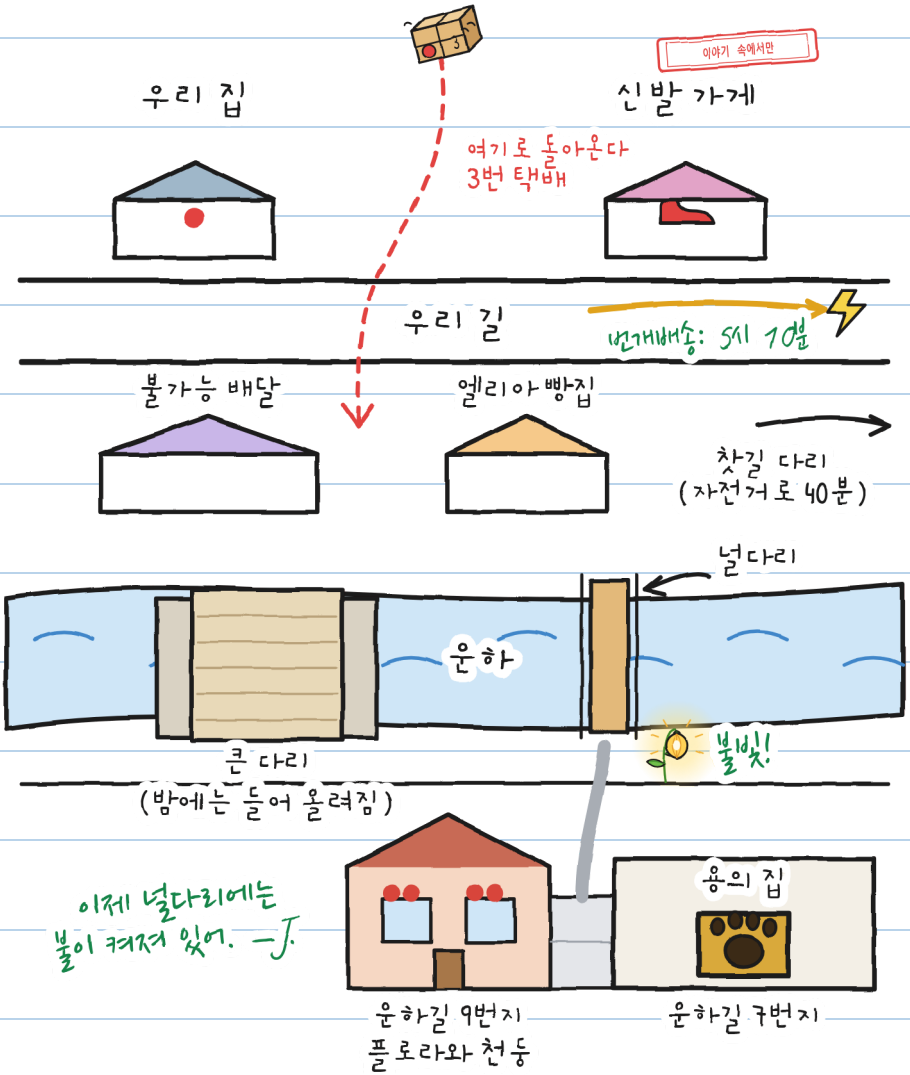
불가능 배달 . 4

(곧 나옵니다)



부스러기는 어디에 내려앉을까? —J.

우리 동네 (버전 3)


이야기 속에서만
우리 집
신발 가게
여기로 돌아온다
3번 택배
우리 길
번개배송: 5시 10분
불가능 배달
엘리아빵집
찾길 다리
(자전거로 40분)
널다리
운하
큰 다리
(밤에는 들어 올려짐)
불빛!
이제 널다리에는
불이 켜져 있어. -J.
용의 집
운하길 9번지
플로라와 천둥
운하길 7번지

너는 이름이 뭐야?

토뇨는 '우리 토뇨'라고 불렸다.

이제 이름을 자기가 고른다. 너는?

이렇게 불러 줘...

이렇게도 불려...

이렇게는 말고...

나는 홀리타. J.는 서명할 때만. —J.

한 이야기, 여섯 가지 사이즈

여섯 가지 사이즈, 20개 넘는 언어.

사이즈 XXS · PRE-A1
마라와 토뇨가 웃어. 빨간 자전거가 보여?

사이즈 XS · A1
마라 아줌마가 거의 웃었다. 토뇨도 같이 웃었다. 토요일 이후로 웃는 걸 못 봤다.

사이즈 S · A2
마라 아줌마가 소리를 냈다. 거의 웃음이었다. 토뇨도 웃었다. 토요일 이후로 웃는 걸 못 봤다.

사이즈 M · B1
마라 아줌마가 소리를 냈다. 웃음 같았다. 토뇨도 웃었다. 토요일 이후로 토뇨가 웃는 걸 못 봤다.

사이즈 L · B2
마라 아줌마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웃음이었을 소리를 냈다. 토뇨도 웃었다. 토요일 이후로 토뇨가 웃는 건 처음 보았다.

사이즈 XL · B2-C1
삽화 소설 · 13+
CEFR 수준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같은 딸랑. —J.

가족과 교사를 위한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진짜 자전거를 탈 때 해야 할 일

1. 헬멧은 언제나, 끈을 단단히 채워서. '바로 옆'에 갈 때도.
2. 남이 너를 보고 듣게 해. 등, 밝은 옷, 벨. 벨은 알리는 거지, 명령하는 게 아니야.
3. 두 손은 핸들에. 뭔가에 정신이 팔리면 안전한 곳에 멈춰.
4. 인도는 걸어가는 사람의 것이야. 거기서는 자전거를 손으로 끌어. 건너기 전에는 멈춰서 살펴.

'이야기 속에서만' 도장은 이야기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표시해. 길에서는 아니야.

자전거 점검

